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0. 5. / (총 13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단 장 담 당 자	안 광 찬 이 은 실		032-440-7801 032-440-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부산광역시 안전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정 원 안 김 학 윤		051-888-2910 051-888-2883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과 장 담 당 자	박 지 홍 남 승 현		044-201-3804 044-201-378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연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특별 교통대책 결과보고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연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특별 교통대책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부모님·친지와의 반가운 만남도 미루고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 연휴 기간 병원·선별진료소 등에서 쉬지 않고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 이와 함께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것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5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9월 20일(일)부터 10월 3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6.5명으로 이전 2주간(9.6.~9.19.)의 121명에 비해 크게 감소(54.5명)하였다.
 -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51.8명으로 이전 2주간(9.6.~9.19.)의 91.3명에 비해 39.5명 감소하였으며,
 -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4.7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9.6.~9.19.)의 29.7명에 비해 15명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9월 6일 ~ 9월 19일		9월 20일 ~ 10월 3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21명	⇒	66.5명
수도권	91.3명		51.8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3.5명		14.5명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39건		22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8.4% (346/1883)		18.3% (208/1134)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추석 연휴가 낀 지난 한 주(9.27.~10.3.)는 일 평균 57.4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다만, 연휴 기간의 검사량 감소 영향과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 중반은 되어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최근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18.3%이며,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만한 요인이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8.23. ~ 8.29.	8.30. ~ 9.5.	9.6. ~ 9.12.	9.13. ~ 9.19.	9.20. ~ 9.26.	9.27. ~ 10.3.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31.0명	218.4명	134.6명	107.4명	75.6명	57.4명
수도권	253.9명	162.1명	98.9명	83.7명	59.6명	44명
비수도권	77.1명	56.3명	35.7명	23.7명	16.0명	13.4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1.6명	11.6명	14.7명	12.3명	13.4명	15.6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한 진정세로 안정시키느냐가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 긴 시간 동안 힘든 노력으로 조금씩 이뤄온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은 피하며, 항상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 이용	서울시·인천·경기도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①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여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9월 26일~9월 27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0.2%(60천 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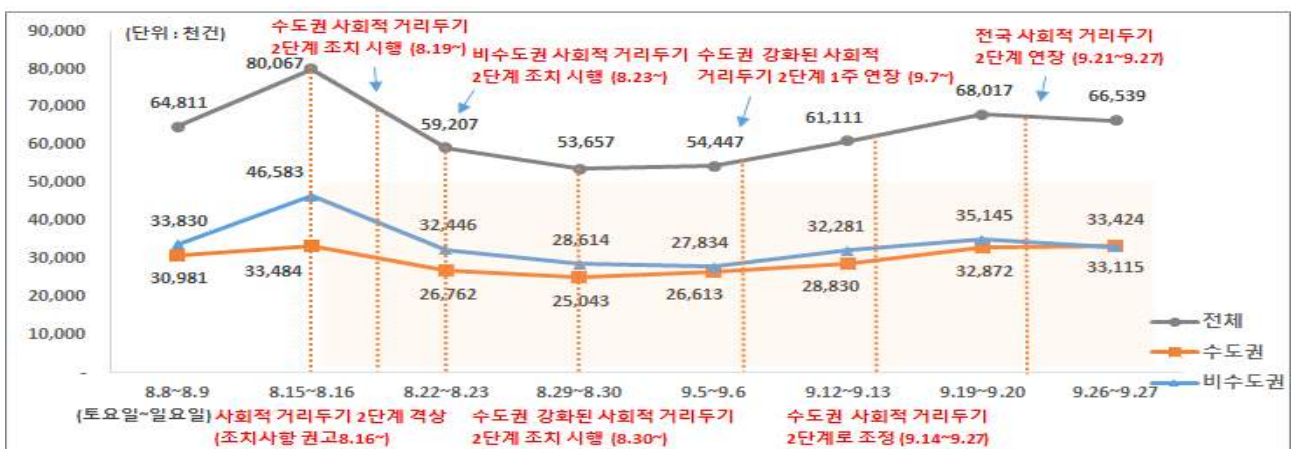
- 단, 직전 주말(9월 19일~9월 20일)과 비교하면 1.7%(552천 건) 증가하였다.

* (8.15.~8.16.) 33,484천 건 → (9.19.~9.20.) 32,872천 건 → (9.26.~9.27.) 33,424천 건

- 한편, 주말(9월 26일~9월 27일)동안의 전국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6.9%(13,528천 건) 감소*하였다.

* (8.15.~16.) 80,067천 건 → (9.19.~9.20.) 68,017천 건 → (9.26.~9.27.) 66,539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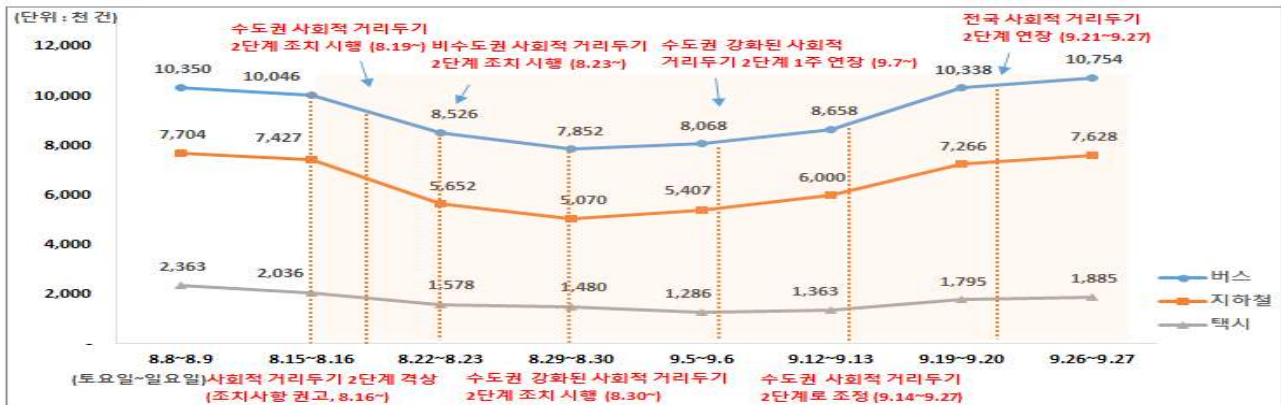


②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3.9%(758천 건) 증가하였다.

- 단, 직전 주말(9월 19일~9월 20일)과 비교하면 4.5%(868천 건) 증가하였다.

* (8.15.~8.16.) 19,509천 건 → (9.19.~9.20.) 19,399천 건 → (9.26.~9.27.) 20,267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③ 수도권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2.7%(1,483억 원) 증가하였다.

- 직전 주말(9월 19일~9월 20일)과 비교하면 3%(384억 원) 증가하였다.

* (8.15.~8.16.) 1조1648억 원 → (9.19.~9.20.) 1조2747억 원 → (9.26.~9.27.) 1조3131억 원

○ 한편, 주말(9월 19일~9월 20일)동안의 전국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5.4%(1,127억 원) 증가*하였다.

* (8.15.~16.) 2조945억 원 → (9.19.~9.20.) 2조1577억 원 → (9.26.~9.27.) 2조2072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3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무급휴직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 집합금지 명령·제한 피해업체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며, 10월 중 사업장 소재 자치구에 신청하면 11월부터 선별하여 5,5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 * 7월1일 이후 50인 미만 기업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
- 휴·폐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4,528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며, 생활방역 지원, 방역수칙 단속 보조요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인천광역시는 추석 연휴 이후의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 먼저, 추석 연휴 후에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연계를 강화하며,
 - 확진자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검사에서 결과 확인까지 24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취약계층 입소시설 및 요양병원,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시 체계(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주말 동안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대부분 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성가대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였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부서 조직을 보강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공공의료과'를 신설하여 병상배정 및 공공병원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였다.

4 추석 연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부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추석 연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부산광역시는 최근 1주일(9.28.~10.4.) 동안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총 48명 증가하였으며, 이중 다수가 목욕탕과 동네 의원을 통한 접촉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졌다.
- 이에 따라, 부산시는 10월 1일에 코로나19 확산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마련하였다.
-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핀셋' 방역 조치를 시행하여, 10월 2일(금)부터 15일(목)까지 만덕동 소재 일반·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 10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만덕동 일원의 소공원(18개소)을 폐쇄하고, 만덕동 유치원 및 초중고교(16개소)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 또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 격리 조치 및 접촉자 검사를 추진하고,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였다.

- 10월 5일(월)부터 11일(일)까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 고위험시설 6종과 목욕장업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일반음식점은 규모와 무관하게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되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집합 금지	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 콜라텍	집합 제한	① 대형학원(300인 이상)	② 뷔페
	③ 단란주점	④ 감성주점		③ 노래연습장	④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금지	⑤ 헌팅포차	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제한	⑤ 실내 스탠딩공연장	⑥ 유통물류센터
	⑦ 목욕장업(중위험)			⑦ 일반음식점(규모 무관)	

5 추석 특별 교통대책 결과보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추석 특별 교통대책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금년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9.29~10.4, 6일간) 총 이동 인원은 3,116만 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1% 감소하고, 일 평균 이동 인원도 519만 명으로 작년 대비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총 이동 인원 : 3,116만 명 ('19년 3,215만 명, △3.1%)
 - 일 평균 이동 인원 : 519만 명('19년 643만 명, △19.3%)
- 고속도로는 총 교통량이 2,628만 대로 작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나, 일 평균 교통량은 438만 대로 작년 대비 13.8% 감소하였다.
 - * 고속도로 총 교통량 : 2,628만 대('19년 2,541만대, 3.4%)
 - 고속도로 일 평균 교통량 : 438만 대('19년 508만대, △13.8%)
- 또한, 대중교통 좌석 판매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57%, 55% 감소하였다.

- 다만, 항공의 경우는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행객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전년 대비 수송실적) 철도 △57%, 고속버스 △55%, 항공 ↑1.2% 연안여객선 △25%

-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 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다.

- 고속도로 휴게소는 출입구 동선 관리, QR코드나 간편 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실내에서의 취식 금지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되었으며,

-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제주와 김포 등 국내 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꼼꼼히 진행하였다.

-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 피해도 크게 감소하였다.

- 일 평균 교통사고는 376건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평균 사망자 수와 일 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5.3명, 501.5명으로 전년 대비 36.9%, 45% 감소하였다.

* 사고발생 : 총 2,256건('19년 2,682건, △15.9%), 일 평균 376건('19년 536.4건, △29.9%)

* 사망자 : 총 32명('19년 42명, △23.8%), 일 평균 5.3명('19년 8.4명, △36.9%)

* 부상자 : 총 3,009명('19년 4,561명, △34%), 일 평균 501.5명('19년 912.2명, △45%)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마련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대체적으로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4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7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0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18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4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4.)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정원 2,740명)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3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4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729개소, ▲음식점·카페 8,105개소 등 29개 분야 총 2만9742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74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91개반, 69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